

처음부터 제대로 번역 가이드





번역 업체를 선정할 때,
너무 적은 정보와
알 수 없는 업체 신뢰도,
엉망인 번역 결과물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셨나요?



이 안내서는 귀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가장 좋은 품질의 번역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계획 단계

- Step 1. 정말 번역이 필요할까?
- Step 2. 싸다고 무조건 좋을까?
- Step 3.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 Step 4. 정확한 견적일까?

착수 단계

- Step 5. 좋은 품질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 Step 6. 직역인가 의역인가?
- Step 7. 번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 Step 8. 글로벌하게!

마무리 단계

- Step 9. 번역본 받아보기
- Step 10. 한 번 더 확인하기

Step 1. 정말 번역이 필요할까?

해당 문서의 내용 전부를 꼭 번역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단가가 저렴하더라도 분량이 많아지면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수백 장의 문서 파일 전체를 번역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내어 번역하세요.

1999년, 프랑스의 한 금융기관은 번역 착수 전 500여 장에 달하는 매뉴얼을 230장으로 줄였습니다. 외국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모두 분량에서 제외하여 효과적인 번역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TIP

- ▶ 기존 문서의 필요한 부분만 번역하거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짧은 문서를 번역해도 좋습니다.

Step 2. 싸다고 무조건 좋을까?

단가가 낮은 곳은 추가 비용이 많고 감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이 가장 높은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번역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요?

해당 업체의 단가표를 확인하시고 원어민 감수,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파일 편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본 단가에 포함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업무 시간 단축 및 고품질 번역이 가능합니다.

TIP

- 기본 서비스가 많은 번역 회사를 선정하면 품질과 비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FTA오역으로본국내통번역시장현주소]

인턴에 협정문 번역 맡긴 대한민국... '싼 값' 찾다 국제 망신

한국경제 2011.04.20 기사 발췌

“ '이식' (transplant)은 '수혈'로, '역학' (epidemiological)을 '피부의학'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협정문에서 공식 확인된 207건의 오류 중 일부다.

이런 단순 오류가 국가 간 조약에 포함되는 무역 협정문에서 무더기로 쏟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00쪽의 협정문 전부를 전문인력에 맡기면 2억6000만원이 들어 내부에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 작업 당시 실무자들이 일일이 다 볼 수 없어 인턴들이 상당 부분 번역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 원영희 성균관대 번역대학원 교수는 위 기사를 통해 FTA 협정문 오류 사태가 번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번역업무를 하찮게 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번역의 질보다는 싼값으로 번역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Step 3.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난이도와 번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번역가는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보통 5~10장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맡긴 프로젝트에 번역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 해주면 좋을까요?

해외 진출 준비를 위해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을 먼저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더 들인다면 문장을 더 많이 곱씹어보고, 더 꼼꼼하게 감수하고, 결국에는 더욱 높은 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번역가에게 1시간을 더 주면
차후 수정시 소요될 2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IP

- 5장 정도의 분량을 하루로 계산하면 됩니다.

Step 4. 정확한 견적일까?

번역 업계에서 일컫는 한 페이지란 글자 크기 12를 기준으로 보통 220단어(약 700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견적 산출은 기본요금 \times 난이도요금 \times 페이지수 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견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페이지수, 즉 단어/자 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단가의 경우 띄어쓰기로 자수를 늘려 견적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업체에 정확한 단어/자 수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TIP

- ▶ 단어/자 수 확인하는 법 : 한컴오피스 한글-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MS 워드-하단의 '단어 수:' 클릭

‘내가 해도 되겠네’라는 유혹을 떨치세요.

말하기와 쓰기는 다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부드럽고 세련된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외국어로 미팅을 하고, 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도 작성한 문서를 원어민이 보면 “외국인”이 썼다고 열에 아홉은 바로 알아본답니다.

만약 제품의 해외 판매 전략이 낮은 가격인 경우 혹은 이국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수의 특정 그룹을 목표 대상으로 선정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색하거나 낮은 수준의 현지 언어를 사용하면 많은 국가(특히 영어권)에서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 예산이 낮게 책정된 경우, 내부에서 번역을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원어민 감수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과 통역.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통역이 **말**을 **말**로 바꿀 때
번역은 **글**을 **글**로 바꿉니다.



통역이

해당 상황의 분위기와 맥락에 맞도록
유연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번역은

기존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새롭게 써내는 것이기에
두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력은 물론
필력도 필요합니다.

Step 5. 좋은 품질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품질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번역이 착수되기 전까지 아마 번역 업체의 직원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번역 업체의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묻는다면 고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번역 스타일 (직/의역)
2. 구체적 지역 (스페인어의 경우,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3. 목표하는 대상 (최종 소비자, 거래 업체, 내부 직원용 등)

TIP

➤ 좋은 번역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Step 6. 직역인가 의역인가?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가 원본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은 직역은 사전적으로는 정확하더라도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웃음을 사는 것은 물론 판매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수억대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의 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케냐 나이로비 취항 광고글을 게재했습니다. ‘원시적 에너지’를 ‘Primitive energy(미개한 에너지)’로 사전적으로 직역해 많은 케냐인들이 미개인 취급 당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번역은 해외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주는 반면, 정확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은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TIP

-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원어민 감수 혹은 로컬라이제이션을 꼭 요구하세요.

Step 7. 번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발표, 홈페이지, 영업 브로셔, 카탈로그, 뉴스 기사, 기업 공개 정보 등 글의 목적에 따라 번역 스타일, 발음 용이도, 단어 선택, 문장 길이 등은 모두 달라집니다.

번역의 목적을 언급하면 번역가는 특정 대상에게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번역을 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빠른 업무 속도를 요구하는 문화권에서 대부분은 정확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내부 정보용** 번역을 합니다. 빨리 번역물을 생산해낼 수는 있지만 잘 다듬어진 **외부 출판용** 번역보다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번역의 목적이 판매나 설득이라면 **외부 출판용** 수준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TIP

- 글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되 외부용 혹은 출판용이라고 덧붙이세요. 대부분의 경우, 번역 품질에 더욱 신경쓸 것입니다.

Step 8. 글로벌하게!

지나치게 문화·지역 중심적 표현은 피하세요. 속담, 유행어 등을 직역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원한다면 해당 문화권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어민 번역가 혹은 감수자에게 로컬라이제이션을 꼭 요청하세요.

포드의 경트럭 피에라(Fiera)는 스페인어로 ‘못생긴 늙은 여자’를 의미해 남미 매출이 형편없었습니다.

마쓰다의 미니밴 라퓨타(Laputa)는 일본인에게는 유명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가 떠오르지만 스페인어 사용 국가에서 Puta는 심한 욕설이기 때문에 칠레에서 차량의 이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IP

- 원어민에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요청하세요.
-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입력할 때 국가 번호도 포함하세요.

원어민 감수는 꼭 필요한가요?

KFC의 슬로건

손가락을 빨아 먹을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의 “Finger-Lickin’ Good”이 중국어로 오역되어 “손가락을 먹어 버리십시오”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턴 항공의 슬로건

매일 비행에 혼신을 다해 일한다는 의미의 “We earn our wings daily”는 스페인어로 오역되어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종종 죽음으로 끝납니다”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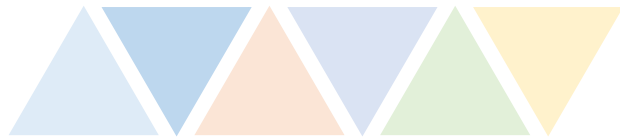
한식 메뉴판

곰탕 (Bear Thang), 육회 (Six Times), 동태찌개 (Dynamic Stew)

해당 언어의 원어민 감수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은
무엇인가요?



바로 언어의 **현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한 언어, 문화, 정서에 맞추는 과정으로,
성공적인 현지화는
현지의 문화 속에서 서비스나 제품이
개발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Step 9. 번역본 받아보기

번역 혹은 감수 시, 애매한 부분은 파일 속에 메모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업체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 회사라면 최소 한달 간은 수정 및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또한 서비스업입니다. 번역업체 직원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친절한지 확인하세요. 담당 직원의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에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TIP

- 파일 속 메모 확인하기
- 친절한지 알아보기

Step 10. 한 번 더 확인 하기

인쇄 혹은 발표 전에 전문 번역가 및 감수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법, 표기법, 스타일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특히, 다국어는 표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붙어는 단어와 콜론(:) 사이에 띄어쓰기가 필요하고 인용부호로는 《 》을 사용합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기하며, 작은 부호나 띄어쓰기만 달라져도 의미가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미국의 시립 역사 100주년 기념 현수막에 100주년이 100 anos로 표기되었습니다. 연단위를 뜻하는 año 대신 항문을 뜻하는 ano가 쓰여져 의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TIP

- 인쇄나 발표 전, 원어민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류, 오타 등 확인 요청하세요.



질문이 많은 번역가

작성된 문서를 번역가보다 꼼꼼하게 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만큼 번역가가 품질에 신경을 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번역가는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원본의 문장을 먼저 분리·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질문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